

##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김관형\*\* · 심태섭\*\*\*

### <요 약>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많은 세금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하여 신고 되기에,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은 많지만 대부분 세무조사, 세율, 가산세 등 외부적 동기에 따른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동기와 관련 없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이 높은 경우가 많아, 외부적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동기 이외에도 납세자는 개인의 의식,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 비금전 동기인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납세순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내재적 동기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와 ‘사회정체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동기에 따른 변수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가장 일관된 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그리고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의 응답자들이 어떠한 세무신고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을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자는 비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노출 빈도와 관심이 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기에,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자료 분석에 도움을 준 변정희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 세무사, kkhcta@hanmail.net,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tsshim@uos.ac.kr, 교신저자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응답자로 하였다. 세무대리인으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였다. 총 1,0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33개(납세자 59명과 세무대리인 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변수로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변수와 외부적 동기변수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순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당국의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내재적동기, 외부적동기, 성실신고,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세무조사가능성, 납세순응

## I. 서 론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정부가 해결해야 할 고민 중의 하나이다. 이에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예를 들어, Alm, Sanchez and De juan 1995 ; Feige 1989 ; Frey and Weck-Hanneman 1984).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동기들은 내재적동기와 외부적동기로 나눌 수 있다(Dwenger, Kleven, Rasul and Rincke 2016). 우선 개인은 도덕적 정서, 죄책감, 상호관계, 사회납세윤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비금전적 동기에 의해 납세 순응할 수 있다(Andreoni, Erard and Feinstein 1998 ; Luttmer and Singhal 2014).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동기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s)’라고 한다. 반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s)란 납세순응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요인들로서 세율의 변경, 세무조사확률, 벌금 등을 의미한다(Dwenger et al. 2016).

납세순응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세율, 세무조사, 가산세율, 정보공개, 보상 등 외부적 동기에 집중하였으며, 대부분 이러한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Kirchler, Muehlbacher, Kastlunger and Wahl 2010).<sup>1)</sup> 그러나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1) 이러한 연구는 주로 실험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실험방법을 이용한 납세순응에 대한 기존연구는 배수진·심태섭(2011)을 참조하시오.

‘낮은 세무조사확률과 처벌을 가지는 현대의 세금체계하에서도 납세순응이 더 높다’는 사실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wenger et al. 2016). 이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외부적 동기 변수로만 납세순응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를 추가하여 납세순응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재적 동기 중 윤리적 신념, 윤리수준, 성격,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등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동시에 포함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과 결론들을 토대로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들 변수가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각 변수 간에도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가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내재적 동기중 대표적인 요인인 개인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기에 이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내재적 동기 중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납세자는 본인이 속한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납세윤리에 따라 납세 순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사회납세윤리가 개인납세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사회정체성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사회납세윤리는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윤리관에 내재되기 때문에, 사회납세윤리가 개인납세윤리를 통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로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넷째, 세무조사가능성의 납세순응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외부적 동기로 분류되는 많은 변수 중 세무조사가능성이 가장 일관되게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근거로 외부적 동기의 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본다. Atkinson(1957)에 따르면 동기강화(strength of motivation)는 동기(motive), 기대(expectancy), 유인(incentive)간의 배가적인 함수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납세순응에 대한 기대가 아무리 높아도 유인이 낮으면 강한 동기부여가 이뤄질 수 없고 ‘동기’, ‘기대’, ‘유인’의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동기부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납세윤리’를 ‘동기’로 설정하고 ‘사회납세윤리’를 기대로, ‘세무조사가능성’을 ‘유

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동기뿐 아니라 외부적 동기 등을 요인으로 포함하기에 기존 연구에 비하여 보다 납세순응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포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당국이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본 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개인납세율리, 사회납세율리, 사회정체성을 측정할 문항을 세 가지 질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제시문과 성별, 연령 소득 등의 통제변수를 측정할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였다. 납세자로는 비사업자보다 세금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업자 중에서 세금에 관심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개인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신고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납세자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세무대리인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하여 회수된 133개(납세자 59명과 세무대리인 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납세율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납세율리가 납세순응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가설을 채택하는 분석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납세율리는 개인납세율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정체성의 크기에 따라 사회납세율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넷째,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증거를 분석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율리와 사회납세율리 및 세무조사가가능성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유의미한 양의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내재적동기와 외부적동기로 나눈 후 이 동기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인 모형을 통해 검정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개인납세율리, 사회납세율리, 사회정체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과 세무조사가가능성 외부적 요인들이 직접적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납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세당국이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하여는 세무조사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만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개인납세율리, 사회납세율리, 사회정체성과 같은 내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납세순응제

고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한다. 하지만 표본이 적어 분석의 신뢰도를 더 높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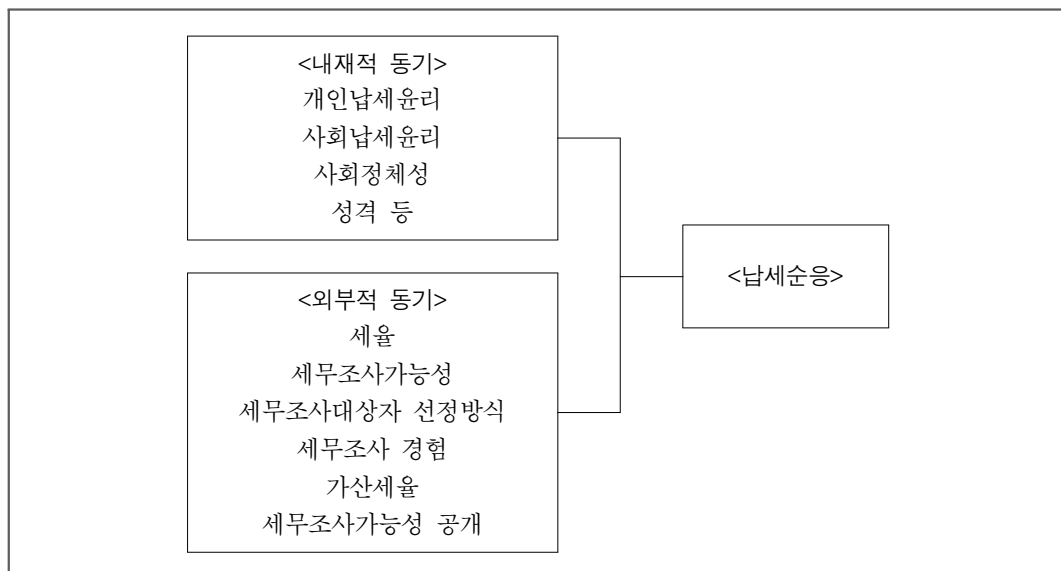
##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인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그리고 사회정체성과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 1. 내재적 동기 및 외부적 동기와 납세순응의 관계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통해 납세순응의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변수를 Dwenger et al.(2016)처럼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동기는 납세순응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 죄책감, 상호관계, 사회납세윤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비금전적 동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세율의 변경, 감사 확률, 벌금 등 금전적 동기들을 외부적 동기라 한다. 기존연구에서 연구된 변수를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나누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동기에 따른 납세순응 관계



Roberts(1998)는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인을 개인심리요인, 환경요인(위험과 보상), 투입관련 과업요인, 절차요인, 그리고 산출관련 과업요인의 총 다섯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인심리요인, 환경요인, 투입관련 과업요인이 절차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절차적 요인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 기초로 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한 후 이들이 납세순응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대표하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2.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를 Wenzel(2004)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우선 개인 윤리적 관점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정체성으로 나눴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으로 정의하였다.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자 개인차원의 동기가 되고, 사회납세윤리와 사회정체성은 조직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되기에 보다 다양한 측면의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선정한 이유와 이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 설정은 아래와 같다.

### 가. 내재적 동기 (1) : 개인납세윤리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납세윤리란 모든 상황에서 행동화되어지는 개인의 고유한 속성으로서의 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된 의사결정 상황(납세상황) 하에서의 윤리의식을 나타낸다. 정재율(2010)은 납세환경에서의 윤리변수를 납세도의와 윤리환경으로 나누고 납세도의는 다시 일반적 윤리수준(*general ethical belief*)과 상황적 윤리수준(*contextual ethical belief*)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 윤리수준이란 심리학의 일치성 이론(*theory of consistency*)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믿음과 판단으로 행동하게 되는 윤리를 의미한다(Henderson and Kaplan 2005). 이에 비하여 상황적 윤리수준은 개인의 태도와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Lewis(1982)의 주장에 따른 변수로서, 특정한 납세상황에서의 행동하게 되는 윤리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납세상황에서의 윤리의식을 개인납세윤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상황적 윤리수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납세자 행동에 개인납세윤리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개인납세윤리와 납세순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윤리를 개인의 양심, 가책과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윤리와 성실 세금신고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윤리로 나누어 분석하

고 있다. 우선 일반적 윤리수준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Schwartz and Orleans(1967)는 납세자의 개인적 양심(conscience)이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개인적 양심의 가책을 중요시하는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McGraw and Scholz(1991)는 Schwartz and Orleans(1967)가 발표한 실험연구를 발전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결과와 규범을 강조한 집단과 조세책임을 줄이기 위해 개인납세윤리를 강조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조세순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orcano(1988)는 탈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인 윤리(general honesty)’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재을(2004)은 도덕발달수준(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국세청의 강압적 의사전달은 도덕수준이 낮은 피실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납세윤리를 납세순응의 관심변수로 선정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개인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일반적 상황에서의 윤리가 아닌 세금신고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Bosco and Mittone(1997)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는데 기존 도박이론에서 윤리와 같은 내재적 동기가 결여된 납세자가 탈세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납세자의 도덕적 구속력에 따라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도덕적인 요인은 납세자의 탈세결정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eckers, Sanders and Roark(1994)는 윤리적 태도(ethical attitudes)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Grasmick and Bursik(1990)의 연구와 Scott and Grasmick(1981) 연구에서는 탈세에 대한 경험적 예측이 납세순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Henderson and Kaplan(2005)은 윤리적 신념이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 평가는 조세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lanthorne and Kaplan(2008)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이 높은 조세회피기회를 갖는 납세자가 그렇지 못한 납세자에 비해 조세회피를 비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적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상황에서 개인이 가지는 윤리와 사회가 가지는 규범이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납세와 관련된 사회납세윤리와 비슷한 상황을 개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윤리수준이 아닌 특정 상황에서의 윤리수준을 다룬다. 즉 세무문제에서의 납세자의 윤리수준을 개인납세윤리로 정의한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 1>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나. 내재적 동기 (2) : 사회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social norm)이란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는 규칙과 기준들로서 법적 강제 없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지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Cialdini and Trost 1998). 즉, 사회납세윤리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환경과 기준에 따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 Booth and Schulz(2004)은 윤리적 환경은 조직이 운영되고 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특정한 상황을 제공하며 개인의 윤리수준과 관계없이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재율(2010)은 이러한 윤리적 환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납세윤리라 정의하고 있다.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연구 중 Alm, Gary, McClelland and William(1999)의 실험적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납세자가 엄격한 제재에 대해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납세순응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Wenzel(2001a, 2001b)은 대부분의 다른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신념이 본인의 납세 행태와 불일치한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현장실험을 했다. 그 결과 피드백을 받은 납세자집단은 이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납세순응이 높아졌다는 유의적인 결론을 얻었다. 그 밖의 많은 연구<sup>2)</sup>에 따르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집단에 속한 납세자는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집단에 속한 납세자들에 비하여 보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chwartz and Orleans(1967)은 처벌위협에 비해 도의적 호소가 세무관련 순응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현장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Hite(1997)는 전화음성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계된 윤리적 메시지가 일부 실험참여자에게 조세순응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 2>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다. 내재적 동기 (3) :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지각에 기반한 자기 개념의 일부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의할 때 자기가 속한 집단에 비추어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Tajfel and Turner 1986).

각 개인은 자신들과 타인들을 민족, 종교, 성, 연령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에 의해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의내리기 보다 본

2) 예를들면 De Juan, Lasheras and Mayo(1994), Porcano(1988), Spicer and Lundstedt(1976), Wallschutzky(1984), 그리고 Webley, Cole and Eidjar(2001) 등이 있다.

인이 속한 범주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자기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속성을 공유하려고 한다. Turner, Hogg, Oakes, Reicher, and Wetherell(1987)에 의하면 하나의 정체성이 현저하게 커지면 다른 정체성은 낮아지기에, 만일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기준을 크게 의식하면 자신의 독특한 목표와 특징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게 된다. 즉 조직의 정체성을 갖춘 개인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자기정체성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의 특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조직의 성취를 자기성취감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대리만족이 가능하고 자신의 성공이 곧 조직의 성공이라는 동일성 지각 때문에 각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조직에 공헌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brams and Hogg(1990)와 Kelman(1958)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범주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러한 영향은 동료집단 구성원의 견해와 행동경향이 개인의 진정한 신념으로 내면화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Hogg and Terry(2000)은 조직 내에서의 사회정체성과 자기범주화를 설명하였다. 조직에 속한 구성원은 사회정체성에 기반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에, 자기가 속한 조직의 규범에 동조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에 속한 각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윤리수준을 개인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정체성이 높을수록 그 집단의 규범을 개인의 윤리적 가치로 내면화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전체의 규범이 개인납세윤리로 내면화하기에, 사회정체성이 높은 사회에 속한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사회납세윤리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sup>3)</sup>

이에 따라 사회납세윤리가 개인의 윤리로 내면화되는 정도가 사회정체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납세윤리를 개인이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납세윤리와 개인의 행동의 관련성이 낮기에(즉, 사회정체성이 낮기에)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Bardach 1989). 그러나 사회정체성이 높은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납세윤리가 개인의 윤리로 내면화 되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수립하였다. 우선 사회납세윤리가 개인납세윤리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납세순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납세윤리가 개인의 윤리로 내면화되는 정도가 사회정체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 사회납세윤리는 개인납세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정체성 크기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

3) 그러나 기존 연구중에서 사회정체성이 사회납세윤리의 개인내면화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많다(예를 들어, McGraw and Scholz 1991 ; Blumentha, Christian and Slemrod 2001 ; Brooks and Doob 1990 ; Hasseldine, Kaplan and Fuller 1994).

### 3. 납세순응의 외부적 동기 : 세무조사가능성

납세순응의 외부적 동기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로 세월에 따른 납세순응을 분석한 연구로는 Friedland, Maital and Rutenberg(1978), Baldry(1987), Benjamini and Maital(1985), Alm, Jackson and McKee(1992a), Alm et al.(1995), Beck, Davis and Jung(1991), 그리고 Boylan and Spinkle(2001)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순응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Friedland et al.(1978), Beck et al.(1991), Alm et al.(1992a), 그리고 Alm, Cronshaw and McKee(199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세무조사 가능성의 높아짐에 따라 납세순응이 높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Collins and Plumlee(1991), Alm et al.(1993), 그리고 심태섭(2008)은 무작위추출방식보다 최저금액신고자추출방식 등 보다 체계화된 세무조사 선정방식이 납세순응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Beck, Davis and Jung(1992)은 최저금액 신고자추출방식이 무작위추출방식에 비해 납세순응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배수진·심태섭(2011)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신고소득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선정방식의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무작위추출방식에서 신고소득수준별 추출방식에 비해 더 높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방법에 따른 납세순응을 분석한 연구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외부 동기인 세율, 세무조사가능성에 비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선정방식을 변수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다른 변수와 함께 분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네 번째로 Friedland et al. (1978), Beck et al.(1991), Alm et al.(1992a), 그리고 Alm, Jackson and McKee(1992b) 등은 가산세율에 따른 납세순응을 분석하였는데 가산세율 증가가 보고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lm, Jackson and McKee(1992c)와 Torgler(2003) 등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적 동기로 ‘세무조사가능성’을 선택하였다. 이는 다른 변수에 대한 기존연구보다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이 일관되기 때문이다.<sup>4)</sup> 즉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연구는 총 18개 연구 중 15개였으며, 이에 비하여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연구는 없었다. 즉 다른 변수보다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가능성을 납세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무조사가능성을 변수로 선정함으로써 납세자

4) Kiechler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세율의 증가가 납세순응과 양의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총 15개 중 2개,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연구는 11개여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종류구분 등을 통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수립하였다.

<가설 4> 세무조사가능성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4.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의 상호작용

Christiansen(1980)은 세무조사확률이 낮고 가산세가 높은 경우가 세무조사확률이 높고 가산세가 낮은 경우보다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변수가 또 다른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납세순응수준을 보다 상승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인 ‘개인납세윤리’와 외부적 요인인 ‘세무조사가능성’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Atkinson(1957)은 동기부여가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 방향을 설정하며, 그 행동을 유지하는 심리적인 힘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인간은 목표달성에 대한 욕구와 목표달성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과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의 상호작용의 함수로 행위의 강도가 결정되며 특정 행위에 대한 강도는 동기(motive), 기대(expectancy), 유인(incentive)간의 배가적인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Michael 1998). Atkinson(1957)의 연구에서 ‘동기’는 어떤 유형의 만족(예를 들어 성취, 친화, 권력 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의향(disposi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대’는 특정 결과 후에 성과(performance)가 있을 것이라는 인지된 예상(cognitive anticipation)을 의미하며, ‘유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공되는 특정 목표의 상대적 매력(attractiveness) 혹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이벤트를 나타내며 실험적으로 조작되기도 한다. 이 요인들이 동기강화에 미치는 상호작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tkinson의 동기강화 모형

$$\text{motivational strength(동기강화)} = \text{motive(동기)} \times \text{expectancy(기대)} \times \text{incentive(유인)}$$

이명곤·김종현(2005)은 Atkinson의 동기강화이론모형을 이용하여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실험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기’를 ‘세율’로, ‘기대’를 ‘세무조사확률’로, 그리고 ‘유인’을 ‘가산세’로 설정하여 세 가지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들 상호작용에 의해 납세순응수준이 강화되는지 검정하였다. 그 결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납세순응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에서 Atkinson의 동기강화모형을 보면, ‘동기’는 납세자의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개인납세윤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대’는 납세자 개인이 속한 사회의 납세수준이 본인의 납세수준과 동일시화 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사회납세윤리’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가능성’은 상황적 요인에 속하며 납세순응의 제고를 위한 ‘유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납세윤리’와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가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Atkinson의 동기강화 모형의 ‘동기’, ‘유인’, ‘기대’요인이 되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납세윤리 수준이 높은 납세자가 높은 수준의 사회납세윤리 집단에 속해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가능성 정책적 효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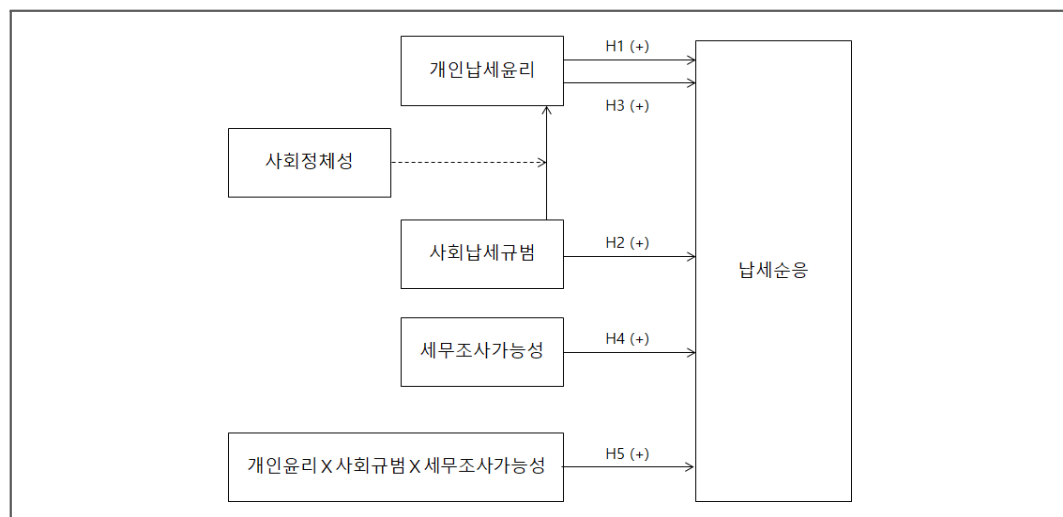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납세윤리와 세무조사가가능성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및 세무조사가가능성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5.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이상에서 언급한 각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주) 실선화살표는 직접효과, 점선화살표는 간접효과나 조절효과를 의미함.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내재적 동기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와 사회정체성이다. 그리고 또 다른 독립변수는 외부적 동기로 세무조사가가능성이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소득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납세순응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은 개인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설 2는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가설 3은 사회납세윤리가 개인납세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가설 3-1), 이는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강하고 낮을수록 약할 것이다(가설 3-2). 가설 4는 세무조사가가능성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5는 개인납세윤리와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가능성 세 변수의 상호작용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가능성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로 정의된 변수의 영향을 함께 분석 가능한 연구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다른 세무조사가가능성을 변수로 둔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세무조사가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써베이(survey)방법으로 이뤄지며 응답자는 납세순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응답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의 외부적 동기인 세무조사가가능성의 경우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자의 납세순응에 대한 태도를 취하기에, 실험방법도 같이 사용한다.

써베이나 실험 연구에서 응답자의 대상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납세순응에 대한 기존연구는 학생이나 세무대리인을 응답자 혹은 실험참여자로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 신고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동기의 납세순응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Wartick, Madeo and Vines(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상황에서 세금관련 용어를 사용한 경우 실험참여자의 신고소득율이 나이(25세 미만 vs. 25세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아마도 단순한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 납부 경험여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고 세금신고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에게 다양한 제재<sup>5)</sup>와 보상책<sup>6)</sup>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과세당국에서도 세무대리인의 의사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개인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기에,<sup>7)</sup> 세무대리인의 의사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정호·노현섭(2012)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이 납세자들의 혜택과 제재, 및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Newberry, Philip and Wyndelts(1993)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납세순응에 대한 실험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객의 상황과 재무제표 작성자(preparer)의 제재가 세무대리인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Cuccia(1994a)는 재무제표의 작성자(preparers)와 보다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경제적, 심리적 제재가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재에 대하여 작성자와 공인회계사가 서로 상반된 공격성의 증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의 김정호·노현섭(2012), Newberry et al. (1993), 그리고 Cuccia(1994a)의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에 납세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포함시키면 동기에 따른 납세순응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와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사업소득이 있

- 5)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 또는 부실로 인한 확인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기획재정부 징계양형규정 참조)는 다음과 같다.

| 허위금액   | 징 계                                      |
|--------|------------------------------------------|
| 5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
| 1억원 이상 | 직무정지 3개월 ~ 1년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억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개월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6)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무확인시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한다.

- 7) 2016년 주요세목 전자신고현황(국세청 국세통계 참조)

| 세목    | 총 신고건수    | 전자신고 건수        |                |                |
|-------|-----------|----------------|----------------|----------------|
|       |           | 합계             | 본인             | 세무대리인          |
| 종합소득세 | 5,954,281 | 5,417,598(91%) | 2,436,161(41%) | 2,981,437(50%) |
| 법인세   | 610,244   | 601,986(99%)   | 18,578( 3%)    | 583,408(96%)   |
| 원천세   | 9,355,354 | 9,256,770(99%) | 1,393,152(15%) | 7,863,618(84%) |

※ 종합소득세 신고의 상당수는 기타소득자, 인적용역 제공하는 사업소득자 및 연말정산 수정하는 근로소득자 등이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비율은 50%보다 훨씬 높다.

는 납세자는 매년 반복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에, 관련 기존연구에서 세금납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응답자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신고와 납부를 하기에, 세무대리인의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본 연구는 2017년 10월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 1,000부를 만들어 납세자(사업장 대표자) 500명, 세무대리인 500명을 선정하였다. 세무대리인 선정은 한국세무사회로 연구목적을 전달하여 명단과 정보 협조를 받았으며 지역별 인구 비례하여 무작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도 세무사로 등록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응답대상에 포함되었다. 납세자 선정은 세금신고에 관심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의 세무대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총 1,000명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때 회수용 우표를 붙이고 그리고 연구자의 주소가 인쇄된 반송용봉투를 설문지와 동봉하였다.<sup>8)</sup>

## 2. 변수의 선정과 측정

### 가. 처리변수(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처리변수(독립변수)는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다. 개인납세윤리와 사회납세윤리에 대한 질문문항은 Wenzel(2004) 연구를 참고하였고, 사회정체성에 대한 문항은 Haslam et al.(2004) 문헌을 참조하였으며, 세무조사가능성을 조작하기 위한 상황설정은 김훈·배수진·심태섭(2010)과 박주영·심태섭(201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각각의 변수는 설문문항의 응답으로 측정하며 리커트 척도법(likert scale)<sup>9)</sup>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동의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으로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정밀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1) 개인납세윤리

납세순응에 미치는 윤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개념은 기존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Schwartz and Orleans(1967)은 도덕적 호소(moral appeal)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금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Song and Yarbrough(1978)은 세금윤리척도(tax ethics scor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Grasmick and Green(1980)과 Grasmick and Scott(1982) 탈세잘못(tax evasion

8) 보다 구체적인 설문지배포 및 회수 내역은 제4장 결과분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9) 리커트 척도법은 척도 구성이 간단하며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목에 대한 응답의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채서일 2003).

wrong)이란 용어를 통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Thurman(1991)은 탈세 저항(threat of guilt)이란 개념을 사용하였고, Kaplan, Newberry and Reckers(1997)은 도덕적 추론 수준(level of moral reasoning)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독립변수로서의 윤리는 그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접근방향에 따라 적합한 정의가 필요하다.

개인납세윤리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Henderson and Kaplan(2005)은 윤리적 신념(ethical orientation)이 윤리적 평가(ethical evaluations)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윤리적 신념이 납세순응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리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도덕적 평등(moral equity), 상대론(relativism), 계약주의(contractualism)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Wenzel(2004)도 개인납세윤리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은 “귀하는 귀하의 세금신고서에 현금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세금환급에 대한 세금공제를 부풀려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일은 얼마나 사소한 범죄입니까?”이다.

본 연구에서는 Wenzel(2004)의 개인납세윤리 측정 문항을 이용하되 우리나라 세법과 납세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즉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납세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기존연구의 윤리측정 항목을 수정하였다.

이에 개인납세윤리를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1. 귀하는 ‘세금 신고 시 영수증 발행 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전부 신고해야 한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 9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2. 귀하는 ‘세금신고서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을 일체 반영해서는 안된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 9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3. 귀하는 ‘고객의 요구로 부가가치세를 할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중대함: 9점, 매우 사소함: 1점). 응답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1점에서 9점을 선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납세윤리 척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 (2) 사회납세윤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수로서의 윤리는 그 범위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용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내재적 요인을 개인납세윤리 뿐 아니라 사회납세윤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납세자 개인의 고유한 납세속성을 개인납세윤리라고 보고, 납세자 환경에 따라 개인납세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개념을 사회납세윤리로 설정하였다.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납세윤리를 다룬 연구 중 Wenzel(2004)는 사회납세윤리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하의 세금신고서에 현금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환급에 대한 세금공제를 부풀려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일은 얼마나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하나요?”

본 연구에서는 Wenzel(2004)의 사회납세윤리 측정 질문을 사용하되 해당 문구를 우리나라 세법과 납세환경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1.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영수증발행이 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전부 신고하고 있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 9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2.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을 일체 반영하고 있지 않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 9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그리고 “3. 만일 우리나라 사업자가 고객의 요구로 부가가치세를 할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법정서류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귀하는 얼마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매우 중대함: 9점, 매우 사소함: 1점)이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0점에서 9점으로 배정하였으며, 사회납세윤리 측정값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납세윤리가 높음을 나타낸다.

### (3)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은 사회납세윤리가 개인의 윤리에 내면화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서 사용된다. 심리학에서는 설문문을 통해 사회정체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Brown et al.(1986)은 열 개의 질문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 “나는 그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한다”, “나는 그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룹이 강하게 구속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그룹에 속해있는 것이 기쁘다”, “나는 내 자신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룹에 속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조직에 의해 방해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그룹의 멤버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다”, “나는 그룹을 비판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Mael and Ashforth(1992)는 여섯 가지 문항을 통해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누군가 그룹을 비판할 때 인신공격이라고 느낀다”, “나는 그룹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낀다”, “내가 조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조직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누군가 조직을 칭찬하는 것을 개인적 칭찬으로 느낀다”, “만약 미디어에서 조직을 비난하면 나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는 “강한 부정”부터 “강한 긍정”까지 5단계로 답한다. Doosje et al.(1995)는 네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나는 나 스스로를 그룹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룹의 구성원임이 자랑스럽다”, “나는 그룹의 구성원임에 강한 구속력을 느낀다”, “나는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게 동질감을 느낀다”이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부터 “전적으로 동의함”에 대하여 7단계로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Haslam et al.(1999)는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 가지 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이다. Wenzel(2004)은 “조직의 구성이 되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나는 조직의 구성원임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고 1~7단계로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납세윤리 변수, 사회납세윤리 변수 측정과 동일한 질문수인 세 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질문 중 우

리나라 특성과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세 가치를 문항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질문은 “1. 귀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러움 : 9점,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 1점), “2. 귀하는 다른 나라 미디어에서 우리나라를 비난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나요?” (매우 기분이 나쁨 : 9점, 아무렇지 않음 : 1점), “3. 귀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나요?” (매우 크게 관심 : 9점, 전혀 관심 없음 : 1점) 이다. 1점에서 9점 사이의 값을 선택하게 되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사회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4) 세무조사가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동기로서 세무조사가가능성을 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우선 세무조사 가능성과 납세순응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세무조사 가능성 조작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훈·배수진·심태섭(2010)은 세무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강화와 가산세율의 증가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세무조사 변수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그 동안의 성실신고로, 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라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최근 여러 복잡한 문제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의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박주영·심태섭(2016)은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가능성이 세금신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무조사 가능성 변수를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최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A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최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A는 최근 6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여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상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가능성 변수를 조작하였다. 우선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서의 납세순응을 측정 시 질문 앞부분에 “최근 국가지출의 증가로 인해 많은 세수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를 매우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라는 상황을 넣어 조작하였다.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상황은 납세순응에 대한 질문 앞에 “귀하는 2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당해 연도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라는 상황으로 하였다.

#### 나.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순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도를 직접 묻는 대신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자가 어떠한 세무신고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에게 본인의 세무신고 사실을 직접 질의하면 죄책감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실제와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사례를 통해 납세순응을 측정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손금과 익금에 대한 두 가지 가상적인 상황에서 세무신고 성향을 측정하였다. 즉 ‘애매한 경비를 손금으로 신고하는 정도’와 ‘현금매출 등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금액을 수입금액에 신고 정도’를 묻는 두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질문의 응답 값들과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변수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설문지에서 각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손금에 대한 상황에서는 “귀하의 당해 연도 실제 수입금액은 1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실제 발생한 경비는 업무관련 경비 2억원, 업무관련 없는 경비 2억원, 업무와의 관련 구분이 모호한 경비 5억원입니다. 귀하께서 당해연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경비로 얼마의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동종업종의 평균 경비율(수입금액 대비 경비금액)이 60%라는 것이다. 이 조건은 응답자로 하여금 업무와의 관련 구분이 모호한 경비를 손금으로 반영할 유인을 갖게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작년 신고시 경비율이 90%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과거 신고를 따르는 경향을 갖기에, 동종업계의 신고성향이나 본인의 과거의 신고성향에서 응답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앞과 같은 방식으로 동종업계의 신고성향이나 본인의 과거의 신고성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손금에 대한 가상상황은 본 연구의 실제 설문지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귀하의 당해연도(신고대상연도) 실제 수입금액은 10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실제 발생한 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       | 2억원 |
| 업무와의 관련 구분이 모호한 경비 | 5억원 |
|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 2억원 |

※ 귀하가 영위하는 업종의 작년도 신고된 평균 경비율(수입금액 대비 경비금액)은 60%입니다.

※ 귀하는 작년에는 경비율 90%로 신고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자에게 본인이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경비를 얼마로 신고”할 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즉 앞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보듯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 2억원은 당연히 반영할 것이다. 이에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금액의 최소금액을 2억원(아래의 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 입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세무조정, 즉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9억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9점(아래의 ⑨)으로 측정하였다. 즉 공격적인 세무신고시 9점, 성실한 세무신고를 한 경우 1점의 점수를 갖게 된다. 즉 납세순응이 높을수록 낮은 값이 부여도록 하였다. 하지만 분석시에는 역코딩(reverse-coding)하여 납세순응이 높을수록 높은 값이 부여도록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1. 귀하께서 당해연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경비로 얼마의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십니까? |               |               |               |               |               |               |               |        |
|-------------------------------------------------|---------------|---------------|---------------|---------------|---------------|---------------|---------------|--------|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7억원 미만 | 7억원 이상-8억원 미만 | 8억원 이상-9억원 미만 | 9억원 이상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두 번째 익금에 대한 상황에서는 “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작년에 비해 매출의 50%가 증가했으며 당해연도 실제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출 5억원,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1억원, 현금매출 4억원이다. 귀하께서 당해연도 소득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고자 합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현금매출이 과세관청에서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응답자로 하여금 현금매출을 누락할 유인을 갖게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당해연도 비슷한 업종, 규모의 평균 현금매출액은 2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납세자들의 신고를 따르려는 경향을 가지기에, 유사업종이나 유사규모의 평균매출액을 제시하였다. 즉 익금에 대한 가상 상황은 본 연구의 실제 설문지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
|--------------------------------------------------------------------------|------|
| 귀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작년에 비해 매출의 50%가 증가했으며, 당해연도(신고대상연도) 실제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세금계산서 매출                                                                 | 5억원  |
|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 1억원  |
| 현금 매출                                                                    | 4억원  |
| 계                                                                        | 10억원 |
| ※ 현금매출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 ※ 당해연도 비슷한 업종, 규모의 평균 현금매출액은 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응답자에게 본인이 “소득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을 얼마로 신고”할 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즉 앞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총 6억원은 당연히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것이다. 이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금액의 최소금액을 6억원(아래의 ⑨)으로 하였다. 이러한 신고성향은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이기에, 가장 공격적인 세무조정이다. 이에 비하여 응답자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무조정은 “모든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9.5억원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1점(아래의 ①)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中间的의 응답으로 0.5억원을 간격으로 하여, 총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제 설문지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2. 귀하께서 2017년도 소득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얼마를 신고하시고자 합니까? |               |               |               |               |               |               |               |           |
|------------------------------------------------|---------------|---------------|---------------|---------------|---------------|---------------|---------------|-----------|
| 9.5억원<br>이상                                    | 9억원<br>-9.5억원 | 8.5억원<br>-9억원 | 8억원<br>-8.5억원 | 7.5억원<br>-8억원 | 7억원<br>-7.5억원 | 6.5억원<br>-7억원 | 6억원<br>-6.5억원 | 6억원<br>미만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앞에 보는 바와 같이 납세순응에 대한 답변은 1점에서부터 9점까지의 점수가 측정하였다. 설문지에서 공격적인 세무신고한 경우 9점, 성실한 세무신고는 1점으로 측정되지만 실제 분석 시에는 역코딩(reverse-coding)하여 공격적인 세무신고시 1점, 성실한 세무신고를 한 경우 9점의 점수를 갖게 된다. 즉 납세순응이 높을수록 높은 값이 부여도록 하였다.

#### 다. 통제변수의 측정

납세순응의 요인 측정하는 여러 실증연구들에서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Friedland(1978)은 세월에 따른 납세순응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여부, 나이, 고용여부, 결혼여부, 성별 등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Wenzel(2004)은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등 내재적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 개인소득, 가족소득을 사용하였다. Bobek, Amy and Kelliher(2011)은 납세순응의 동기로서 윤리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나이, 가족소득, 성별,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배수진·심태섭(2011b)은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식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그리고 성실납세자 혜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년도 신고상황, 소득세율, 가산세율, 가산세, 극단적 신고행위의 방지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개인소득, 그리고 가정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sup>10)</sup>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는 1점, 대학

10) 통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하시오.

원줄업은 4점으로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한달 평균 개인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을 사용하였고 200만원 이하는 1점, 1,000만원 초과는 6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 소득수준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가정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귀하 가정의 한달 평균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을 사용하였고 200만원 이하는 1점, 1,000만원 초과는 6점을 부여하여 가정소득 수준을 측정하였다.

## IV. 결과분석

### 1. 적절성평가(manipulation check)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가 설문지에서 가정한 세무조사상황에 대한 두 가지 상황 중 본인이 답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 맨 마지막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성평가 질문을 하였다. 즉 “앞장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귀하가 처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가능성은 어떠하였나요?”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으로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면 9점, 매우 낮은 상황이면 1점”으로 하였다. 또한 추가로 “이 질문은 앞장을 확인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문구도 추가하였다.

<표 1>은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의 적절성평가 응답 값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 간 적절성 평가 응답 값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가설적인 상황을 응답자가 잘 인식하고 실험에 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세무조사가가능성에 따른 집단간 적절성평가 t-검정

| 집 단             | 표본수 | 평균     | t       | 유의확률  |
|-----------------|-----|--------|---------|-------|
|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높은 집단 | 66명 | 4.1617 | -1.853* | 0.067 |
| 세무조사가가능성이 낮은 집단 | 67명 | 4.7692 |         |       |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 2. ANCOVA분석결과

분석결과 개인납세율리 변수(A)는 F값 4.362로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인납세율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가설 1을 지지한다. 사회납세율리(B)의 F값은 3.019로 10% 유의수준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낸다. 사회납세율

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세무조사가능성 변수 (C)도 F값 4.742로 5% 유의수준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개인납세윤리(A), 사회납세윤리(B)의 상호작용변수와 사회정체성(C)이 추가된 상호작용변수 모두 F값이 각각 0.387, 1.985로 둘 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납세윤리가 개인납세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정체성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4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A), 사회납세윤리(B), 세무조사가능성(D)의 상호작용변수의 F값은 9.378으로 1%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2〉 ANCOVA 분석결과

| Source                            |                 | 자유도 | 평균자승합  | F값       | Pr>F |
|-----------------------------------|-----------------|-----|--------|----------|------|
| main effect                       | 개인납세윤리 (A)      | 1   | 8.902  | 4.362**  | .039 |
|                                   | 사회납세윤리 (B)      | 1   | 6.162  | 3.019*   | .085 |
|                                   | 사회정체성 (C)       | 1   | 2.150  | 1.054    | .307 |
|                                   | 세무조사가능성 (D)     | 1   | 9.677  | 4.742**  | .032 |
| Interaction effect<br>(2 factors) | (A)×(B)         | 1   | .790   | .387     | .535 |
|                                   | (A)×(C)         | 1   | .779   | .382     | .538 |
|                                   | (A)×(D)         | 1   | .120   | .059     | .809 |
|                                   | (B)×(C)         | 1   | .481   | .235     | .628 |
|                                   | (B)×(D)         | 1   | 1.090  | .534     | .467 |
|                                   | (C)×(D)         | 1   | .379   | .185     | .668 |
| Interaction effect<br>(3 factors) | (A)×(B)×(C)     | 1   | 4.050  | 1.985    | .162 |
|                                   | (A)×(B)×(D)     | 1   | 19.138 | 9.378*** | .003 |
|                                   | (A)×(C)×(D)     | 1   | .181   | .089     | .766 |
|                                   | (B)×(C)×(D)     | 1   | .876   | .429     | .514 |
| (4 factors)                       | (A)×(B)×(C)×(D) | 1   | .868   | .425     | .516 |
| 통제 변수                             | 성별              | 1   | 4.892  | 2.397    | .124 |
|                                   | 세무경험            | 1   | 4.572  | 2.240    | .137 |
|                                   | 교육              | 1   | 1.927  | .944     | .333 |
|                                   | 개인소득            | 1   | 6.709  | 3.287*   | .073 |
|                                   | 가족소득            | 1   | 5.979  | 2.930*   | .090 |

주) \*, \*\*, \*\*\*는 각각  $p < 0.1$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 V. 결 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납세순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순응의 동기를 기존연구들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고 납세순응의 동기가 되는 여러 요인을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로 나눈 후 내재적 동기의 변수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동기는 ‘세무조사가능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과 결론들을 토대로 이 변수들을 동시에 포함한 모델을 만들고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다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사회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사회납세윤리는 개인납세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 영향의 크기는 사회정체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넷째,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거된 답변 중 유효한 133개(13.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에는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을 측정할 문항을 각각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제변수로 활용할 성별, 연령, 경험, 개인소득, 가계소득 문항도 선정하였다.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 분석방법으로 경로분석과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납세윤리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분석결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사회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납세윤리는 간접적으로 납세순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체성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크기가 다름을 본 분석에서는 지지해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지지하고 있다.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기존의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외부적 동기를 요인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내재적

동기와 외부적 동기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의 내재적 동기 변수와 외부적 동기변수를 포괄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납세순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납세순응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무조사가능성을 높이는 것 외에 납세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거나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납세순응을 제고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만 정책으로 통제하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납세자가 성실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때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행위보다 현금 수입금액 결정하는 행위영향을 쉽게 받는다.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한 수입금액 결정을 유인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상 설문지 표본이 133개로 표본수가 적어 분석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과 주 분석방법인 경로분석의 모형적합도가 기준 값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공분산분석 외에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 근거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김 구. 2008.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제1판. 비앤엠북스.
- 김원형 · 남승규 · 이재창. 2006. 『신산업 및 조직심리학』 제1판. 학지사.
- 김정호 · 노현섭.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1443-1461.
- 김 훈 · 배수진 · 심태섭. 2010. “세무조사의 강화와 가산세율의 증가가 세무대리실무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제19권 제1호 : 141-171.
- 노경섭. 2018.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 박주영 · 심태섭. 2016. “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제1호 : 177-211.
- 배수진 · 심태섭. 2010.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 437-480.
- 배수진 · 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 215-273.
- 심태섭. 1998. “세무대리인의 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1권 : 161-182.
- 심태섭. 2008.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195-222
- 이명곤 · 김종현. 2005. “Atkinson모형을 이용한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실험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1호 : 37-56.
- 이학선 · 심태섭. 2013.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과 세무당국의 벌금부과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 1-33.
- 정재을. 2004. “개인적 특성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 173-209.
- 정재을. 2010.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 137-166.
- 채서일. 200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3판. 학현사.
- Abrams, Dominic and Hogg, Michael A. 1990. Social Identification,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nflu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 : 195-228.
- Alm, J., Jackson B. R., and McKee, M. 1992a.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 : 107-114.
- Alm, J., Jackson B. R., and McKee, M. 1992b. Institutional Uncertainty and Taxpayer Complia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4) : 1018-1026.
- Alm, J., Jackson and McKee, M. 1992c. *Why People Pay Taxes : Tax compliance and*

- Enforcemen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lm, J., Cronshaw, Mark B., and McKee M. 1993. Tax compliance with endogenous audit selection rules. *Kyklos* 46 : 27–45.
- Alm, J., Gary, H. McClelland, and Schulze, William D. 1999. Changing the Social Norm of Tax Compliance by Voting. *Kyklos* 2 : 141–171.
- Alm, J., Sanchez, I., and De juan, A. 1995.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in tax compliance. *Kyklos* 48 : 3–18.
- Andreoni, J., Erard, B. and Feinstein, J. 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 818–860.
- Atkinson, J. W., 1957. Motivation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 (6) : 359–372.
- Baldry, J. C. 1987. Income tax evasion and the tax schedule : some experimental results. *Public Finance* 42 : 357–383.
- Bardach, E. 1989. Moral suasion and taxpayer compliance. *Law and Policy* 11 : 49–69.
- Beck, Paul J., Davis, Jon S., and Jung, Woon O. 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66 : 535–558.
- Beck, Paul J., Davis, Jon S., and Jung, Woon O. 1992. Experimental evidence on an economic model of taxpayer aggression under strategic and nonstrategic audi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 86–112.
- Benjamini, Y., and Maital, S. 1985. Optimal tax evasion tax evasion policy : Behavioral aspects. *The Economics of the Shadow Economy*.
- Blanthorne, C., and Kaplan, S. 2008. An egocentric model of the relations among the opportunity to underreport, social norms, ethical beliefs, and underreporting behavior.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3 (2008) : 684–703.
- Blumenthal M., Christian, C. Slemrod, J., and Smith M. G., 2001. Do normative appeals affect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National Tax Journal* 54 : 125–38.
- Bobek, Donna D., Hageman, Amy M., and Kelliher, Charles F. 2011. The social norms of tax compliance : Scale development, social desirability, and presentation effects. *Accounting Behavioral Research* 14 : 37–66.
- Bosco, L., and Mittone, L. 1997. Tax evaion and moral constraints : Some experimental evidence. *Kyklos* 50 : 297–324.
- Both, B., and A. Schulz. 2004. The impact of an ethical environment on managers' project evaluation judgments under agency problem conditions. *Accounting, Organization and*

- Society* 29 : 473–48.
- Boylan, S. J., and Spinkle, G. B.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 297–324.
- Brehm, S. S., and Brehm, J. W. 1981. *Psychological Reactance : A Theory of Freedom and Control*. New York : Academic Press.
- Brooks, N., and Doob, A. N. 1990. *Tax evasion : Searching for a theory of compliant behavior*. Securing compliance : Seven case studies.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rown, R., and Abrams, D. 1986. The Effects of Intergroup Similarity and Goal interdependence on intergroup Attitudes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 78–92.
- Brown, R., Condor, S., Mathews, A., Wade, G., and Williams, J. 1986. Explaining intergroup differentiation in an industrial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ist* 59 : 273–286.
- Christiansen, V. 1980.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 (3) : 389–393.
- Cialdini, R., and M. Trost. 1998. *Social influence :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New w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J. H., and Plumlee, R. D.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66 (3) : 559–576.
- Cuccia, A. D. 1994a.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 on Paid Preparers : Intergratio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1) : 41–66.
- De Juan, A., Lasheras M. A., and Mayo, R. 1994. Voluntary tax compliant behavior of Spanish income tax payers. *Public Finance* 49 : 90–105.
- Doosje, B., Ellemers N., and Spears R. 1995. Perceived Intragroup Variability as a Function of Group Status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5) : 410–436.
- Dwenger, N., Kleven, H., Rasul, I., and Rincke, J. 2016.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s for tax compliance :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German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pril) : 2016.
- Earl R. Babbie. 2007. 「사회조사방법론」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 Feige, E. 1989. Currency velocity and cash payments in the US Economy : The currency enigma. *Feige, EL*

- Frey, B. S., and Weck—Hanneman, H. 1984. The hidden economy as an ‘unobserved’ variable. *European Economic Review* 26 (1–2) : 33–53
- Friedland, N. 1978. A Simulation Study of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August) : 107–116.
- Friedland, N., Maital, S., and Rutenberg, A. 1978.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 (1).
- Grasmick, H. G., and Green, D. E. 1980.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1 (3) : 325–335.
- Grasmick, H. G., and Scott, W. J. 1982. Tax evasion and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 A comparison with grand petty and thef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 : 213–230.
- Grasmick, H. G., and Bursik, R. J.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 Society Review* 24 (3) : 839–860.
- Hair, J. F., W. C. Black, B. J. Babin, and R. E. Anderson.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Inc.
- Haslam, S. A., Oakes, P. J., Reynolds, K. J., and Turner, J. C. 1999. Social Identity Salience and the Emergence of Stereotype Consensus. *Sage Publications* 25 (7) : 809–818.
- Haslam, S. A., 2004. *Psychology in Organizations : The Social Identity Approach*. Sage Publications.
- Hasseldine, D. J., Kaplan S. E., and Fuller, L. R. 1994. Characteristics of New Zealand tax evaders : A note. *Accounting and Finance* 34 : 79–93.
- Henderson, B. C., and Kaplan, S. E. 2005.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Ethics in Tax Compliance Decis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7 (1) : 39–72.
- Hite, P. A. 1997. Identifying and Mitigaiong Taxpayer Non—compliance. *HeinOnline*.
- Hogg, M. A., and Terry D. I. 2000. Social Identity and Self—Categorization Processes in Organizational Contex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
- Hyland, M. E., 1988. Motivational Control Theory :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 : 642–651.
- Kaplan, S. E., Newberry, K. J., and Reckers, P. M. J. 1997. The effect of moral reasoning and educational communications on tax evasion inten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 (Fall) : 38–54.
- Kelman, H. C. 1958. Compliance, identification, and internalization : Three processes of attitude chang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 51–60.

- Kirchler, E., Muehlbacher, S., Kastlunger, B., and Wahl, I. 2010. Why Pay Taxes? A Review of Tax Compliance Decisions. *The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 Georgia State University* : 7–30.
- Lewis, A. 1982. The Psychology of Taxation. *Oxford : Blackwell*
- Luttmer, E. F. P., and Singhal, M. 2014. Tax Mora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 (4) : 149–68.
- Mael, F., and Ashforth, B. E. 1992. Alumni and their alma mater :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2) : 103–123.
- McGrarty, C., Turner, J. C., Oakes, P. J. and Haslam, S. A., 1993. The creation of uncertainty in the influence process : The roles of stimulus information and disagreement with similar oth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 17–38.
- McGraw, K. M., and Scholz, J. T. 1991. Appeals to civic virtue versus attention to self-interest : Effects on tax compliance. *Law and Society Review* 25 : 471–498.
- Muchinsky, Paul M. and Satoris S. Culbertson(유태용 옮김). 2003. 「산업 및 조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Newberry, K. J., Philip, M.J., and Wyndelts R. W. 1993. An examination of tax practitioner decisions : The role of preparer sanctions and framing effects associated with client condi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2) : 439–452.
- Porcano, T. M. 1988. Correlate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9 : 47–67.
- Reckers, P. M. J., Sanders, D. L., and Roark, S. J. 1994. The influence of ethical attitudes on taxpayer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47 : 825–36.
- Roberts, M. 1998. Tax Accounts’ Judgement/Decision-Making Research :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1) : 78–121.
- Schwartz, R. D., and Orleans, 1967. S. On legal sanc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34 : 274–300.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10.
- Scott, W. J., and Grasmick, H. G. 1981. Deterrence and income tax cheating : Testing interaction hypotheses in utilitarian theori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7 : 395–408.
- Sigala, M. 1999. *Tax compliance and social influenc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Exeter, UK.
- Sigala, M., Burgoyne, C. B., and Webley, P. 1999. Tax communication and social influence

- : Evidence from a British sample.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9 : 237–241.
- Song, Y., and Yarbrough T. E.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5) : 442–452.
- Spicer, M. W., and Lundstedt, S. B.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 : 295–305.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 7–24.
- Terry, D. J., Hogg, M. A., and White, K. M. 2002. *Attitude, behavior, and Social Context : The role of norms and group membership*.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Thurman, Q. C. 1991. Taxpayer noncompliance and general prevention : An expansion of the deterrence model. *public Finance* 46 (2) : 289–298.
- Torgler, B. 2003. Tax morale :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tax compliance. *Faculty of Business and Economics*.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and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UK : Basil Blackwell.
- Turner, J. C. 1991. *Social Influence*. Buckingham. UK : Open University Press.
- Van Zomeren, M., Postmes, T., and Spears, R. 2008. Toward an integrativ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 A quantitative research synthesis of three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34 : 504–535.
- Van Zomeren, M., Postmes, T., Spears, R., and Bettache, K. 2011. Can moral convictions motivate the advantaged to challenge social inequality? Extending th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 : 735–753.
- Wallschutzky, I. G. 1984. Possible cause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5 : 371–384.
- Wartick, M. L., Madeo, S. A., and Vines, C. C. 1999. Reward Dominance in Tax Reporting Experiments : The Role of Contex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1 (1) : 20–31.
- Webley, P., Cole M. and Eidjar, O. P., 2001. The prediction of self-reported and hypothetical tax-evasion : Evidence from England, France and Norwa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 141–155.
- Webley, P. and Julie A. 2010. The economic psychology of value added tax compliance. In *Developing Alternative Frameworks for Explaining Tax Compliance* edited by James

- Alm, Jorge Martinez—Vazquez and Benno Torgler, Routledge International Studies in Money and Banking : 238—259.
- Weigel, R. H., Hessing, D. J., and Elffers, H. 1987. Tax evasion research : 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 215—235.
- Wenzel, M. 2001a. *Misperceptions of social norms about tax compliance (2) : A field experiment*. Centre for Tax System Integrity Working Paper No. 8.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Wenzel, M. 2001b. *Misperceptions of social norms about tax compliance (1) : A prestudy*, Centre for Tax System Integrity Working Paper No. 7. Canberr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Wenzel, M. 2002. The impact of outcome orientation and justice concerns on tax compliance : The role of taxpayers' ident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 629—645.
- Wenzel, M., and Taylor, N. 2003. Toward Evidence—based Tax Administration.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8 (3).
- Wenzel, M. 2004.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 : 213—228.
- Wenzel, M. 2005. Motivation or rationalisation? Causal relations between ethics, norms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 : 491—508.

## The Effects of Taxpayers' Personal Ethics, Social Norm, Social Identification and Tax Investigation on their Tax Compliance

Kim, Kwan Hyung\* · Shim, Tae sup\*\*

### 〈Abstract〉

As the role of the government grows, tax compliances of taxpayers have been becoming very importan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ports to improve tax compliance, however, a lot of research have focused on only extrinsic motivations such as tax investigations, tax rates and additional tax. Since taxpayers' compliances are often high regardless of extrinsic motivations, the previous studies can not fully account for the phenomenon of taxpayer compliance. Thus, intrinsic motives such as personal aware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other non-financial motives that encourage taxpayers to voluntarily comply with tax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extrinsic motivations.

Here, this study proposed a comprehensive model of tax compliance by using various factors of tax compliance based on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to completely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axpayer compliance. This study set representative variables as 'personal ethics', 'social norm' and 'social identity' for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likelihood of taxation investigation' for extrinsic motivation, respectively. Especially, 'the likelihood of taxation investigation' is the most consistent variable of extrinsic motiv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us, we try to investigate how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affect for taxpayers to comply with taxes.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as used to collect data. First of all, the intrinsic motives of the taxpayers were measured. Next, It was analyzed how respondents decide the tax reporting decision depending on the different two levels of external motivations ; (1) high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2) low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Respondents were targeted to 500 Tax accountants and CPA members and 500 Business man for the questionnaire. Also, among Tax accountants and CPA, owner operator and corporate entrepreneurs who are more taxable and interested than non-taxpayers have been selected. Moreover, taxpayer are likely to affect tax compliance since a lot of taxpayers perform tax declaration through Tax accountants and CPA in Korea. Thus, taxpayer such as owner operator and corporate entrepreneurs were chosen as

\* Ph. D.,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CTA, kkhcta@hanmail.net,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sshim@uos.ac.kr, Corresponding Author

taxpayer in this study. A total of 133 respondents (59 taxpayers and 74 Tax accountants and CPA) were answ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sending 1000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 ethics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Second, social ethics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Third, the possibility of tax investigation affects tax compli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personal ethics, social ethics and tax investigation—positively affect tax compliance.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otivation for tax compliance by using both intrinsic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as variables. The result in this study would expected to help policymakers establish policies for improving tax compliance.

〈Key words〉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personal ethics, social norm, social identity, tax investigation, tax compliance